

빨라지는 ‘행정통합 시계’...광주·전남 지역사회 ‘요동’

市 이어 김지사·도교육감 “통합 협력”
도의회, 행정통합 의원총회 의견 수렴
지역 정치권·시민단체 연일 지지 선언
오늘李大통령-지역 정치권 오찬 회동
대통령 메시지 주목...시·도민 보고회도

새해 들어 광주·전남 ‘행정 통합 시계’가 연일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지난해 말 김영록 전남지사가 물꼬를 튼 이후 불과 10여일 만에 행정 통합을 향한 돌니바퀴는 멈춤 없이 추진 동력을 키우고 있다. 특히 속도 조절론을 제기하는 등 각론에 이견을 드러냈던 일부 지역 정치인들까지 신속 추진으로 입장을 선회한 데다, 시민단체들도 일제히 지지를 선언하면서 6·3 지방선거를 앞둔 광주·전남 지역사회가 행정 통합으로 요동치고 있다.

▶ 관련기사 2·3·18면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8일 광주·전남 대통합 및 교육 대전환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김지사와 김도교육감은 이날 도청에서 간담회를 열어 광주·전남 행정 통합 추진에 따른 교육통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교육혁신 방안과 특별법안을 논의했다. 특히 지역소멸위기를 넘어 미래를 지역이 주도하고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축으로서 가장 ‘광주전남특별시’ 출범이 시대적 소명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광주·전남 대통합 및 교육 대전환을 위한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알자! 쓰자! 고사성어”

고사성어를 익히며 삶의 지혜와 인문학적 사고력을 키우는 ‘알자, 쓰자 고사성어’ 프로그램이 8일 광주 동구 인문학당에서 열려 겨울방학을 맞은 학생과 훈장 선생님이 수업 시작에 앞서 책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조영권기자

공동선언문에는 도교육청이 광주·전남 대통합에 적극 찬성하며 통합특별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도교육청이 행정 통합의 핵심 주제로 참여하고 교육 분야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특별법안을 작성하기로 했다.

앞서강기정광주시장과이정선광주시교육감

도 전날 ‘광주·전남 대통합 성공과 교육혁신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광주·전남 행정 통합’ 추진에 따른 교육혁신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공동선언문에는 광주시교육청이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광주·전남 대통합에 적극 공감하고,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광

주시와 긴밀히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교육청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의 핵심 주제로 참여해 선진형 초광역 통합 모델 구축에 힘을 보태고 교육 분야 법안 작성과 검토 과정에 앞장선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날 전남도의회도 행정 통합 관련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열어 각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

다. 도의회는 오는 12월 2차 의원총회를 갖고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광주시·전남도의 속도전에 지역 정치권도 함께 힘을 실으면서 6·3 지방선거 전 행정 통합이 가시화하는 모양새다.

실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온 신정환 국회 행안위원장도 지난해 11월 기준 입장을 바리고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을 2월 말까지 신속 처리하겠다”며 통합단계장 선출 가능성을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광주·전남 위원들과 조국혁신당 광주시장·전남도당도 이날 입장을 내고 신속한 행정 통합 추진을 촉구 하고 나섰다.

시민사회의 지지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와 시민 100여명은 이날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특별시추진위원회 출범을 선포했다.

이런 가운데 9일 열린 예정인 이재명 대통령과 광주·전남 정치권의 오찬 간담회 결과에 지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간담회에서 광주·전남 행정 통합에 대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 가이드라인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강 시장과 김 지사는 9일 이 대통령과의 오찬 후인 오후 6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행정통합 시·도민 보고회’를 열 예정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9일 이 대통령의 오찬 간담회가 광주·전남 행정 통합의 분수령이 되지 않겠느냐”며 “이 대통령이 다시 한번 힘을 실어줄 경우 강 시장과 김 지사가 행정 통합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재정기자

“무안공항 둔덕 없었으면 전원 생존 가능성”

국토부 “안전기준 미부합” 첫 인정
김은혜 의원실, 항철위 보고서 인용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무안공항 활주로 내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를 둘러싼 구조물이 없었거나 콘크리트 둔덕 형태가 아니었다면 회생자 전원 생존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8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용역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지난해 3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

회의 의뢰로 한국전산구조공학회가 무안공항 활주로 내 로컬라이저가 사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학회는 슈퍼컴퓨터를 통해 여객기 기체와 활주로를 구현하고 2개 상황을 가정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하나는 방위각 시설이 별다른 구조물 없이 홀로 있었을 경우다. 이 때 여객기는 동체 착륙 후 일정 거리를 활주한 뒤 큰 충격 없이 멈춰 중·사상자는 없었을 것으로 분석됐다.

다른 하나는 콘크리트 둔덕이 아니라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구조물이 방위각 시설을 둘러싼 상태다. 이 경우 여객기는 1차 충돌 후 공항 담장을 뚫고 밖으로 나갔겠지만, 중·사상자가 발

생할 정도의 충격을 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최근 국토특위 측에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공항 안전 운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다.

사고 이후 국토부는 줄곧 로컬라이저와 콘크리트 둔덕에 대해 위반 사항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특히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는 2020년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개량·교체 공사 설계 용역 입찰 공고를 낼 당시 ‘Frangibility(부서지기 쉬운) 확보 방안 검토’를 명시하고도 콘크리트 둔덕 위에 상판을 덧대 보강한 설계안을 최종 채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재영기자·연합뉴스

주말·휴일 한파에 최대 7cm 눈...강풍 시설물 주의

이번 주말·휴일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다.

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9일 광주·전남 최저·최고기온은 각각 영하 6도~영하 2도, 7~10도로 예보됐다.

10일 최저기온은 1~7도로, 영상권을 보ی겠다. 최고기온 분포는 7~10도다. 한반도 북쪽으로 지나가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오전 6~9시와 오후 3~6시 사이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이후에는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다.

예상 적설·강수량은 각각 2~7cm, 5mm며 오후 6시부터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1~3cm, 5cm 안팎의 매우 강한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돼 대설 특보가 발표될 수도 있다.

11일엔 신안(0도)을 제외한 전 지역의 최저기

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겠다. 곡성·구례는 최저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져 가장 춥겠으며 나머지 지역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각각 영하 5도~영하 1도, 1~3도 분포를 보이겠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눈·비가 예고된 10~11일은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형우기자

Today

동절기 혈액수급 비상 “헌혈해 주세요” 6면

키워드로는 영화이야기-가성의 미학 14면

동인선생 역경강좌·‘풍천소속’ 15면

지구를 살리는 에센스
당신의 에너지 에센스!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는 20℃

난방온도 20℃
1℃↓
₩ 5,150원

운매시 실천하기
₩ 10,300원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
₩ 5,391원

안쓰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 778원

전기요금 절약하고 캐시백 받기

- 조건** 주택용(가정용) 전기 사용 고객 중 27개년 동월 평균 대비 3% 이상 절감
- 신청** 포털 '한전에너지캐시백' 검색 / 한전ON(QR) 접속 / 한전사업소 방문
- 지급액** 절감량 따라 30~100원/kWh

가스요금 절약하고 캐시백 받기

- 조건**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 중 전년 대비 3% 이상 절감
- 신청** 포털 '도시가스 캐시백' 검색 / 공식 홈페이지(QR) 접속
- 지급액** 절감량에 따라 50~200원/m³
- 기간** '25년 12월~'26년 3월

탄소중립 실천하고 인센티브 받기

- 방법**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누리집' 회원가입 → 에너지 사용량 감축(전기/상수도/도시가스) → 인센티브 수령
- 신청**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누리집' 회원가입 → 상세정보 입력 → 회원가입 완료 및 신청(회원 탈퇴 시까지 참여)

광주매일신문 에너지 절약 실천 인증캠페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KCEM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KOMIPO 한국중부발전

KWP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KEPCO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새마을운동중앙회

OLENIA 에너지네트워크

KCEC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